

전북현안 해결 국비확보 막판 사활

예산정책협의회 개최

도·국민의당 '힘 모으기' 새만금 SOC 구축사업 등 당 차원 정책지원 약속

전북도는 13일, 전북도청에서 국민의당 국회의원과 예산정책협의회를 열고 지역의 현안사안을 공유하면서 해결 대책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는 송하진 도지사를 비롯한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 장진영 최고위원, 김관영 사무총장, 김중희 도당위원장, 전정희·임정영 지역위원장 등 12명이 함께하여 국회단계에서 내년도 예산확보를 위해 힘을 모을 것을 다짐했다.

현재, 국회 예산심사와과정으로 지역 현안과 지역공약사업, 주요 SOC사업에 대해 지역의 요구사항을 듣고 당 차원에서 이를 정리하여 정책적으로 지원 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이에 따라 전북도는 국민의당과 내년도 정부예산에 반드시 반영해야 하는 필수 예산사업과 현안에 대해 지원 필요성과 절박한 상황을 설명했다.

이날 정책협의회에서는 국민의당 지역공약이면서 필수 국가예산 확보 대상사업에 대해 논의했다. 새만금 SOC 구축사업(5,610억원)은



13일 도청 종합상황실에서 열린 국민의당-전라북도 예산정책협의회에 송하진 도지사, 안철수 당대표, 김관영 사무총장, 김중희 도당위원장 및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3년 세계잼버리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서는 169개국 청소년 5만명의 참가자 이동 필수요건인 공항, 도로, 항만, 철도 등 기본교통 SOC 조 기구축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주역사 전면개선사업(40억원)은 건축 된 지 35년 된 낡고 협소한 전주역사의 전면개선을 요하는 사업으

로 2018년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 40억원을 국비로 반영 요청, 지리산 권 친환경 전기열차 사업(40.4억)은 2017년 시범노선 대상지 선정과 2018년 국비 40.4억 반영 요청, 차별받는 국가사업인 국립지덕권산림치유원조성과 동학농민혁명 기념공원조성사업은 전액 국비사업으로 추진 할 수 있도록 지원 건의했다.

이날 정책협의회에서는 예산 막바지 단계에서 국민의당과 전라북도가 힘을 모아야 한다는 데 뜻을 함께 했다. 협의회를 마치고 국민의당에서는 2023 새만금 세계잼버리 현장과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를 현장을 방문하고 익산 북부시장 상인간담회를 갖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김진성 기자

가을 옷 입은 전북, 관광객 유혹

도, 국제 트래블마트 참가
관광·투어패스 홍보 활동
국·내외 3500만명 유치 목표

전북도는 '2017년 전북방문의 해'를 맞아 12일부터 이틀간 서울 그랜드힐튼호텔에서 열리는 '서울국제 트래블마트'에 참가해 전북관광 및 투어패스에 대한 홍보와 마케팅 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서울시와 한국방문위원회 공동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국내외 관광업계 1,200개 업체가 참여하는 하반기 최대 행사로 관련기관과 여행업체, 바이어, 지자체를 중심으로 10만여명이 참여해 관광객 유치 전략과 상품개발 등에 관한 벤치마킹 등 폭넓은 정보 교환의 장이 될 전망이다.

이번 서울국제 트래블 마트에는 전라북도 전담여행사(프리미어 패스인터네

셔널, 한그루여행사)가 공동으로 참가, 추석연휴와 가을여행주간을 겨냥해 황금연휴, 가을 힐링, 겨울철 테마, 외국인 관광객 유치 등 4개의 테마형 관광 상품을 운영, 국내·외 관광객 3,500만명 유치를 목표로 다각적인 홍보와 마케팅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또한 전북도는 비즈니스 상담회에 참석하여 일본, 인도네시아, 태국, 말레이시아, 중국, 우즈베키스탄, 미국, 베트남 등 11개 여행사를 상대로 1:1 B2B 상담회도 실시한다.

도 육흥기 관광총괄과장은 "이번 행사 참여를 계기로 전라북도의 강점을 활용한 전주한옥마을 & 전주국립박물관 등 즐길거리, 감동택 시인과 함께 하는 인문학여행 콘서트, 내장산산중 및 번산반도국립공원 등 우리도 관광 자원에 대하여 확실히 인지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성주 사드기지 작전운용 본격화

군 수뇌부 발사대 점검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잔여발사대 4기가 경북 성주의 사드기지에 임시배치됨에 따라 사드 1개 포대 운용에 속도가 붙고 있다. 이에 따라 사드 작전운용 시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사드 발사대를 지지하기 위한 임시패드 설치와 운용 지원 시설공사가 끝나면 수주내에 정상 가동이 가능하다는 전망이다.

이를 고려하면 10월 중에는 실질적으로 본격 운용이 개시된다는 의미다.

국방부 관계자는 13일 "주한미군 사드체계 잔여발사대 4기를 추가배치하고 본격 작전운용에 돌입했다"며 "이

는 각종 탄도미사일 발사와 고위력의 핵실험 등 더욱 고도화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으로부터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이라고 말했다.

사드체계 작전운용이 본격화됨에 따라 한미 군 수뇌부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

박한기 제2작전사령관은 오는 14일 사드기지를 방문해 발사대 위치, 보강공사 진행상황 등을 점검한다.

존 하이튼 미 작전사령관과 송영무 국방부 장관도 곧 사드기지를 찾는다. 사드 포대는 X-밴드 레이더로 불리는 사격 통제 레이더(AN/TPY-2 TMD) 1대, 포대 통제소, 발사대 6기, 발사대 1기당 8발의 요격 미사일 등으로 이뤄진다.

/뉴시스

이낙연, 동성애 처벌 균형법 개정 반대

이낙연 국무총리(사진)는 13일 정처원 일각에서 동성애를 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균형법 개정 움직임에 대해 "개인적으로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이정우 자유한국당 의원이 '균형법 개정 움직임이 있다'는 주장을 하자 "그런 움직임이 어디 있는지 알

지 못했다. 정부여당 견해는 아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동성혼에 관한 질문에는 "동성혼 합법화는 시기상조고 국민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동성혼 합법화는 현 시기적으로 반대"라고 강조했다. 낙태죄 폐지에 대해서도 "그 또한 현행법을 바꾸는 것을 찬성하지 않는다"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한편 이 총리는 야당의 '문제인 정부 인사 참사 지적에 '어췌움이 있다'며 "문제인 대통령도 개선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뉴시스



"선거법 몰랐어요"... 안 통한다

전북선관위, 위법행위 안내·예방활동 강화

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다가오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위법행위 안내·예방활동을 강화한다고 13일 밝혔다.

도선관위는 정당·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입후보예정자 등이 법을 몰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선거법 위반사례를 적극 안내할 것을 구·시·군선관위에 지시했다.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주요 행위로는 ▲ 선거구민의 행사나 모임에 금품·음식물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 관내 경로당 등에 인사 명목으로 과일 등 선물을 제공하는 행위 ▲ 명절 인사를 빙자하여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이 담긴 현수막을 거리에 게시하는 행위 ▲ 정당의 정책홍보물에 입후보

예정자의 공약이나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을 게재하여 선거구민에게 배부하는 행위 등이다.

다만, ▲ 자선사업을 주관·시행하는 국가기관이나 법인·단체에 후원금품이나 물품을 제공하는 행위 ▲ 선거구내 의경이 근무 중인 기관이나 군부대를 방문하여 위문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 의례적인 인사말을 문자메시지나 트위터·페이스북·카카오톡 등 SNS로 전송하는 행위 등은 가능하다.

한편, 도선관위는 연휴기간 중에도 선거법 위반행위 안내 및 신고 접수체제를 유지한다면서 선거법 위반행위를 발견하면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신고해 줄 것을 부탁했다.

/김진성 기자

추석연휴 고속도로 통행료 공짜

10월 3일~5일 100% 면제
공영주차장 무료 개방
문화시설 할인 등 민생 안정

정부가 최대 열흘간 이어지는 이번 추석연휴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공영주차장 무료개방, 고궁·미술관·휴양림 등을 무료 개방하기로 했다.

정부는 역대 가장 명절 연휴를 맞아 다함께 즐기는 여유롭고 풍성한 추석 분위기 조성을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같은 내용의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마련해 발표했다.

우선 추석 당일과 전날, 익일인 10월 3일부터 5일까지 3일간 전국 모든 고속도로 통행료를 100% 면제하기로 했다.

KTX 여객성 승객들을 위한 할인기간도 지난해 4월에서 6일로 늘어나

40%~50%까지 요금이 할인된다. 연휴기간 열흘간 공영주차장, 관공서, 공공기관 주차장을 무료로 개방해 114만대 분량의 주차공간을 확보키로 했다.

정부는 또 풍부한 볼거리·즐거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전국 고궁, 전시관, 휴양림 등 문화시설을 무료 개방하거나 50% 할인키로 했다.

국립현대미술관과 4대 고궁 및 종묘, 조선 왕릉은 무료개방되며, 국립과학관 상설전시관은 50% 할인된다. 국립자연휴양림은 입장료가 면제되고, 국립공원 야영장 시설 이용료는 20%할인, 농촌체험·어촌체험마을도 20% 할인된다.

골프장 그린피도 할인을 추진키로 하고 참여골프장 및 할인폭을 협의키로 했고, CGV·롯데시네마·메가박스 등 주요 영화관의 경우 임시공휴일에 평일요금을 적용키로 했다.

/뉴시스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www.ijmaeil.com